

강릉고 투수 최지민 KIA 유니폼 입는다

신인 드래프트 10명 선발

투수 5·포수 2·내야 1·외야 2명

KIA 타이거즈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2022신인들이 결정됐다.

KIA가 13일 열린 '2022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순위로 강릉고 투수 최지민을 지명하는 등 모두 10명의 신인을 뽑았다. 포지션별로 투수 5명, 외야수 2명, 포수 2명, 내야수 1명이다.

가장 먼저 호명된 좌완 최지민은 186cm, 94kg의 체격으로 제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올해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팀의 우승을 이끌며 최우수선수에도 선정됐다.

최고 143km의 공을 던지는 최지민은 구속 향상이 기대되는 선발 자원으로 꼽힌다.

2라운드에서는 광주일고 내야수 윤도현(181cm, 82kg)이 선택을 받았다.

KIA 1차 지명을 받은 김도영과 중학교 시절부터 유격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유망주로 강한 타구와 견실한 수비력이 강점이다.

3라운드에서 지명된 배명고 투수 강병우는 184cm, 90kg 체격의 좌완 투수로 최고 143km의 공을 던지며, 불펜 즉시 전력감이라는 평가다.

4라운드에서 전주고 사이드암 김찬민(185cm, 85kg)은 안정적인 투구 밸런스를 바탕으로 공 끝 움직임이 좋아 땅볼 유도에 능한 선수로 꼽힌다.

5라운드 이성주(경기도)는 185cm, 95kg의 체격을 지닌 포수로 강한 어깨와 파워, 유연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다. 중장거리형 타자로 기대를 하는 자원이다.

KIA는 이후 6-10라운드에서 백도렬(연세대·외야수), 황동하(인상고·투수), 한승연(전주고·외야수), 신명승(진흥고·포수), 손진규(송원대·투수)를 지명했다.

우투좌타의 외야수인 백도렬은 손목 힘이 강하고, 타격 센스와 파워를 갖췄다.

인상고 에이스 황동하는 투구 밸런스가 좋고, 훈련 집중력이 좋아 발전 가능성이 좋은 점수를 받는다.

한승연은 우타중장거리형 외야수로 신체 밸런스와 전반적인 운동 능력이 뛰어나 성장 잠재력이 크다.

한화의 1차지명 선수 문동주와 배터리로 호흡을 맞춘 신명승은 150km 이상의 빠른 공을 안정적으로 포구하는 능력과 타격 센스가 돋보인다.

송원대 마무리인 손진규는 구위로 타자를 상대하는 유형으로, 불펜 자원으로 평가 받는다.

KIA 권운민 스카우트 워킹그룹장은 "좌완 투수와 우타중장거리형 야수를 지명하는 데 주력했으며, 원했던 선수들을 모두 뽑게 돼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지명을 통해서 지역 출신 선수들이 상위 지명을 받았다.

동성고 에이스 신현민이 SSG의 1라운드 선수가 됐고, 순천효천고 '안방마님' 허인서는 2라운드에서 한화의 지명을 받았다. 광주일고 투수 백진수와 김복원은 각각 3라운드에서 키움과 NC의 선택을 받았다.

KIA 연고팀 중 하나인 정읍 인상고의 외야수 전희범은 두산 4라운드 선수가 됐다.

또 이번 2차드래프트를 통해 총 100명의 선수가 프로 유니폼을 입게 됐다.

포지션별로 투수 52명, 포수 11명, 내야수 20명, 외야수 17명이다. 이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선수가 82명, 16명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2명은 기타 지명 선수로 장충고를 졸업하고 시카고 컵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던 외야수 권광민이 한화 5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9라운드에서 롯데의 선택을 받은 내야수 김서진은 '비선수 출신'으로 눈길을 끈다.

김서진은 홈스쿨링으로 교육과정을 마친 검정고시 출신으로 야구 역시 독학으로 터득한 만 17세의 선수다.

한편 진갑용 KIA 배터리 코치 아들인 경북고 투수 진승현이 2라운드 롯데 지명을 받으면서 또 다른 '부자(父子)야구인'이 탄생했다. 배구스타 하중화의 아들인 덕수고 투수 하혜성도 롯데 5라운드 선수로 프로에 입성하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험난한 한 주 ... 선발 '전쟁'



김현수

T 타이거즈 전망대

롯데·삼성·LG와 7연전
선발 노리는 투수들엔 기회
김현수·윤중현 활약 주목

'호랑이 군단'의 선발 전쟁 2막이 시작된다.

KIA가 험난한 한 주를 앞두고 있다. 12일 NC를 상대로 더블헤더를 치렀던 KIA는 15일 다시 롯데와 하루 두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등 7연전 일정을 보내야 한다.

5.5경기 차까지 벌어진 롯데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2위 싸움 중인 삼성, LG를 적지에서 만난다. 힘겨운 7연전 일정이지만 기회를 노리는 투수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다.

맹던, 임기영, 이외리도 선발진을 구성한 KIA는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도 4·5선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새 외국인 투수 보다카하시가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18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KBO리그 데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게 된다. 그리고 다카하시가 다음 주 합류하게 되면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선발 경쟁은 더 치열해지게 된다.

7연전 일정 속 12일 더블헤더 2차전 선발로 나선던 이외리가 중지 손톱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탈소

■KBO중간순위 (13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KT	104	61	4	39	0
2	삼성	109	58	6	45	4.5
3	LG	101	55	3	43	5.0
4	키움	108	56	1	51	8.5
5	NC	102	49	4	49	11.0
6	SSG	107	51	5	51	11.0
7	두산	102	49	3	50	11.5
8	롯데	104	47	3	54	14.5
9	KIA	100	38	6	56	20.0
10	한화	109	38	7	64	24.0

되면서 선발 후보들에게는 어필 무대가 준비됐다. 앞선 등판에서 좋은 피칭을 보여준 김현수와 윤중현은 분위기 잇기에 나선다.

3연패에 빠져있던 김현수는 지난 9일 키움전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줬다. 불펜 난조로 시즌 2승에는 실패했지만, 분위기 전환에는 성공했다.

안정된 제구를 바탕으로 입지를 넓힌 윤중현은 지난 11일에는 5이닝 2실점의 피칭으로 프로 데뷔 승을 장식했다. 팀의 5연패를 끊은 윤중현은 '고정 선발'을 위한 눈도장을 찍었다.

12일 경기를 통해 6월 25일 이후 기회를 얻은 이민우도 시즌 초반과는 다른 빠른 승부로 3이닝 퍼펙트를 장식하면서 7연전 선발진 '합격점'을 받았다.

12일 더블헤더 1차전에서 2018년 10월 10일 이

후 첫 선발에 나선 한승연은 3.2이닝 4실점으로 결과는 아쉬웠지만,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힌 제구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회의 7연전을 맞게 됐다.

마운드 경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야수들의 득점 지원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KIA는 KT, 키움, NC를 상대했던 지난주에도 1승 1무 4패로 뒷걸음질 쳤다.

답답한 공격에 수비 실수도 치명적이었다. 특히 박찬호가 지난주 뜨거운 이름이 됐다.

박찬호는 8일 KT전에서 2타점 적시타를 날리는 등 상대 선발 데스파이네를 일직 마운드에서 끌어내리는 데 기여했지만, 이날 2개의 실책도 기록했다.

특히 5회말 병살플레이를 기대했던 상황에서 나온 포구 실책은 실점으로 연결됐고, 험난한 이닝을 보낸 KIA 선발 맹던은 6회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경기는 아쉬운 5-5 무승부로 끝났다.

박찬호는 12일 NC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는 아쉬운 주루 장면도 노출했다.

2회말 선두타자 안타로 출루했지만 진루에는 실패했다. 다음 타자 김호령의 타구가 우익수 앞에 떨어졌고, 나성범의 속임 동작에 주춤하던 박찬호가 2루에서 아웃 됐다. 이와 함께 김호령의 안타가 우익수 땅볼로 둔갑했다.

'선발 후보'들의 절실한 경쟁이 펼쳐질 마운드, 야수들의 집중력이 한 주 성적을 바꿀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테니스 코트 세대교체 바람

20대 메드베데프·10대 라두카누 US오픈 단식 우승



다니일 메드베데프



엠마 라두카누

2021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로 열린 US오픈 테니스 대회가 다니일 메드베데프(2위·러시아)와 엠마 라두카누(150위·영국)가 우승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먼저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메드베데프는 현역 20대 선수로는 지난해 US오픈 도미니크 팀(6위·오스트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메이저 왕좌에 올랐다. 메이저 대회 결승에서 현재 20대 나이의 선수가 조코비치, 나달, 페더러 등 남자 테니스의 '빅3' 가운데 한 명을 잡은 것은 올해 메드베데프가 처음이다.

1981년생 페더러가 40세를 넘기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선수로 뛸 수 있을지 미지수고, 1986년에 태어난 나달도 '파워 테니스'를 구사하는 특성상 전성기가 오래 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1987년생인 조코비치도 이번 US오픈에서는 1996년생 메드베데프나 1997년생 츠베레프를 상

대로 랠리가 길어지면 실점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 30대 중반을 향하는 나이를 속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차세대 빅3'로 꼽히는 메드베데프, 스테파노스 치치파스(3위·그리스), 츠베레프 가운데 가장 먼저 메이저 타이틀을 따낸 메드베데프는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선수다.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2017년 딸을 낳고 내리막으로 접어들면서 '춘추 전국 시대'인 여자부는 이번 US오픈에서 2002년생인 라두카누와 레일라 페르난데스(73위·캐나다)가 결승전을 벌일 만큼 평균 나이가 어려졌다.

페르난데스와 3회전과 4강에서 만난 오사카 나옴이(일본),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도 각각 1997년, 1998년생으로 젊은 선수들이지만 페르난데스와 마주 서는 바람에 엄청난 '베테랑'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연합뉴스

리버풀 살라, 통산 100호골 고지 올랐다



무함마드 살라

'이집트 왕자' 무함마드 살라(리버풀)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역사상 최단 경기 5번째로 통산 100호골 고지를 올랐다.

살라르는 13일(한국시간) 영국 리즈의 엘런드 로드에서 열린 리즈 유나이티드와 2021-2022 EPL 4라운드 원정에서 전반 20분 선제 결승골로 자신의 EPL 통산 100호골을 기록하며 리버풀의 3-0 승리에 힘을 보탤다.

이날 승리로 리버풀은 1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위 첼시와 함께 나란히 3승 1무(이상 승점 10·골 득실+8)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하지만 리버풀(9득점 1실점)은 1위 맨유(11득점 3실점)에는 다득점에서 밀리고, 2위 첼시(9득점 1실점)와는 상대 전적에서 원정 다득점 원칙에 뒤져 3위에 랭크됐다.

반면 리즈는 후반 15분 파스칼 스트라워크가 리버풀의 하비 앨리엇에게 과격할 태클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는 수적 열세 속에 개막 4경기(2무 2패) 무승의 부진을 이어갔다.

리버풀은 전반 20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트랜트 알렉산더 아널드의 땅볼 크로스를 살라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왼발로 볼의 방향을 바꾸면서 선제 결승골을 쏘았다. 이로써 살라르는 EPL 무대에서 역대 30번째로 100호골 고지를 밟았다. 살라르는 첼시에서 통산 2골, 리버풀에서 통산 98골을 기록하며 100골을 채웠다.

162경기 만에 대기록을 달성한 살라르는 앨런 시에러(124경기), 해리 케인(141경기), 셰르히오 아케로(147경기), 티에리 앙리(160경기)에 이어 역대 5번째 '최단 경기 100호골' 기록자로 이름을 남겼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리버풀은 후반 5분 파비뉴가 코너킥 이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오른발로 추가골을 터트리며 승리를 확신했고, 후반 15분에는 리즈의 스트라워크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해 수적 우위까지 점유했다. 리버풀은 후반 추가시간 사디오 마네의 췌기골이 이어지면서 3-0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